

2016
Spring

VOL.6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소풍이란
한지에 녹빛 언덕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
말없이도 맘을 돌고
길속한 속뜻까지 헤아려
서로에게 가는 길에
외로움이 없는 것



Letter

세상과 소통 04

Introduction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07

Good Doctor

환자에게 목욕법 가르쳐주는 아토피 명의 08

Smart Ti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아토피피부염 11

Column_1

환절기 계절 변화에 따른 호흡기 관리 12

Column_2

땀과 건강, 잠 잘 때 흘리는 땀은 허약하다는 신호이다 14

Information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16

Global

아들은 건강해지고 엄마는 예뻐졌어요 18

Essay

나와 인연 맺은 사람, 그가 곧 우주다 20

Art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빈센트 반 고흐 22

Travel

당신에게 들려주는 강릉이야기 24

Zoom in Dongguk

DUMC NEWS 26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1

소통

疏 通

아프나... 나도 아프다

벚꽃 흩날리는 밤, 종사관 황보운(이서진)이 채옥(하지원)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절제된 감정으로 건넵니다. “아프나... 나도 아프다.”

오래 전, 인기를 끌었던 퓨전사극 ‘다모’의 대사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도 몇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입니다. 채옥의 다친 팔을 치료해주며 무심한 듯 던진 황보운의 이 말엔 깊은 ‘공감’이 배어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을 읽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랑이 아슬아슬합니다. 그가 처한 현실의 아픔에 나 역시 발을 들여놔야 합니다. 그저 안타깝게 바라만 보는 것으로 안됩니다. 온전히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소통하면서 공감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은 한 몸과 같아 공감 없이는 소통이 이뤄질 수 없고, 소통 없이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사무실 복도에서, 카페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온통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가슴 시린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말 한 마디를 그리워하는 이들로 넘쳐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대는 이유 중 하나도 그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소통이 넘쳐나는 SNS 속에서도 갈급은 해소되지 않는 듯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시대에 ‘소통 부재’란 말이 동면의 양면처럼 따라붙습니다. SNS가 이런 오명을 쓴 데는 듣는 귀(눈)보다 말하는 입(손)이 더 힘 있는 까닭입니다. 경청할 귀보다 주장을 펼치는 입이 많고, 마음을 미처 읽기도 전에 화제가 바뀌어버립니다. 말은 있되 듣는 귀가 없는 형국입니다.

소통한다는 건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문을 떼기 전의 짧은 망설임, 감정의 작은 떨림에서 깊숙이 담아둔 속내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눈빛과 몸짓의 대화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귀를 열고 마음을 기울여 야 합니다. 상대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불통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과 소통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종잇장처럼 얇은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올린 예은(가명)이. 그 아이의 간절한 눈망울이 아른거려 오늘밤도 우리 의료진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합니다.

예은이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온 지난해 7월. 530g의 여리디 여린 몸으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때론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수차례였습니다. ‘이젠 손을 놓치는 건가...’ 그럴 때마다 예은이는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포기해버릴 생명이란 없다.”

예은이가 의료진과 눈빛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전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궁금해 일찍 나온 이른둥이

“난 530g. 그러나 온전한 생명입니다”

22주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530g의 아이. 생사를 넘나드는 신생아중환자를 한 해 수십 명씩 만나고 치료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의료진들에게도 예은(가명)이는 특별한 아이였다. 예은이는 30대인 엄마의 양수가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출생 체중 1kg 미만)’로 세상과 만났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2015년 태어난 신생아는 265명. 그중 1k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14명. 예은이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아이였다.

“국내 의료계는 현재 이른둥이가 ‘최소 23주 이상 500g 이상이어야 생존 가능하다’고 봐요. 병원마다 치료 기준을 23주 이상으로 삼고 있어, 사실 예은이는 ‘치료를 해야 하느냐’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러나 김희섭 교수를 비롯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의료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앞섰다.

“일본은 22주 이른둥이 생존율이 50%에 달해요. 22주 신생아 치료에 적극 나선다는 뜻이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이른둥이 생존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750g 미만 생존율은 60% 이상, 1kg 미만은 90% 이상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22주 이른둥이를 살려낸 경험도 한 번 있구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22주 치료에 다시 한 번 성공한다면, 이른둥이 부모들의 ‘희망’을 그만큼 키워주는 거죠.”(김희섭 교수)





예은이가 선물한 ‘희망가’

이른둥이는 임신 37주(40주가 만삭) 미만에 낳은 아기를 말한다. 2.5kg 미만을 저체중 출생아, 1.5kg 이하 또는 미만을 극소 저체중 출생아, 1kg 이하 또는 미만 아기를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한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이른둥이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 산모 고령화에 불임부부 증가로 인공수정이 느는 게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둥이는 장기나 조직의 미숙으로 여러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많다. 특히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예은이도 그랬다. 혼자 호흡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괴사성장염에 미숙아망막증, 패혈증 등 이른둥이에게서 나타나는 합병증을 고루 보였다.

김희섭 교수는 “매 순간 중요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상태가 급변했다고 했다. 네 차례의 수술을 거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의료진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는 동안 “아기를 포기해달라”는 부모의 절망스런 얘기도 들어야 했다.

“괴사성장염 개복수술을 어렵게 마쳤는데, 장이 움직이지 않아 재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했어요. 말이 그렇지 종잇장보다 얇은 아기의 피부에 칼을 댄다는 게 어떤 심정이겠어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밤새 기도했죠.”

의료진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걸까. 예은이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돼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날이 지난해 24일, 예은이가 의료진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예은이의 눈망울을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죠. 예은이의 ‘의지’가 예은이를 살린 거예요.” 박미순 수간호사의 말이다.

이른둥이, 포기하지 마세요

예은이는 출산예정일보다 9주 3일이 지난 1월 11일 현재 3.3kg. 아직 포레 몸무게 평균치엔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한 상태다. 이른둥이에게서 우려되는 뇌손상도 없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10년간 다져온 팀워크, 신생아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 등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김희섭 교수는 “의학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태어날 이른둥이들을 보다 잘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뿌듯해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른둥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낮은 출산율 못잖게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데도 정책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이른둥이 품어주는 또 하나의 엄마 뱃속

2014 보건복지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정, 소아전문의 24시간 상주, 첨단시설 최신장비 갖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센터장 김도현)는 지난해 11월 ‘이른둥이 가족 만남의 날(홈 커밍 데이)’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2005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2014년 이전엔 신생아중환자실)를 거쳐간 이른둥이 가족 250여 명을 병원에 초대한 것. 이른둥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병원을 떠났던 의료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근무 당시 이른둥이 치료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던 전공의들과 이른둥이 가족들은 오랜만의 재회에 반가워하며 끈끈한 정을 나눴다. 김도현 센터장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불안감이 큰 이른둥이 가족에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의료환경 최우선

개원 초부터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기술 투자에 집중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4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됐다.

지난해 1월엔 보건복지부 지원금과 병원 자체예산 10억여원을 투자해 위생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센터 개보수도 마쳤다.

730여 평 규모에 25병상. 센터 안에 들어서면 병상과 병상 간격이 넓찍해 쾌적하다.

“신생아중환자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이라는 게 김희섭 교수의 설명이다. 지역센터란 이름에 걸맞게 의료진과 시설도 최고 수준이다. 신생아 전담의사가 24시간 상주하고 경기북부센터 중 유일하게 소아심장전문의의 24시간 진료도 가능하다. 소아관련 전문의료진과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도 갖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간호등급체계도 간호1등급(1병상당 간호사 1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박미순 수간호사는 “이른둥이 부모에겐 하루하루가 설움판”이라며 “10년차 이상 간호사가 30% 이상, 7년차 이상은 50%를 넘을 정도로 숙련된 간호사들이 3교대로 간호하는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다.

단독전원(IPS)과 무정전시스템(UPS)에 자가발전 시스템까지 환아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자연채광과 개별조명시스템 등도 구축했다. 경기북부 유일의 저산소성 뇌손상 치료장비, 경기북부 최다 최첨단 인공 환기기와 비침습 인공 호흡기, 최신식 인큐베이터와 실시간 활력징후 파악을 위한 중앙모니터 시스템 등 최신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김희섭 교수는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들과의 전달체계를 긴밀하게 해 지역거점센터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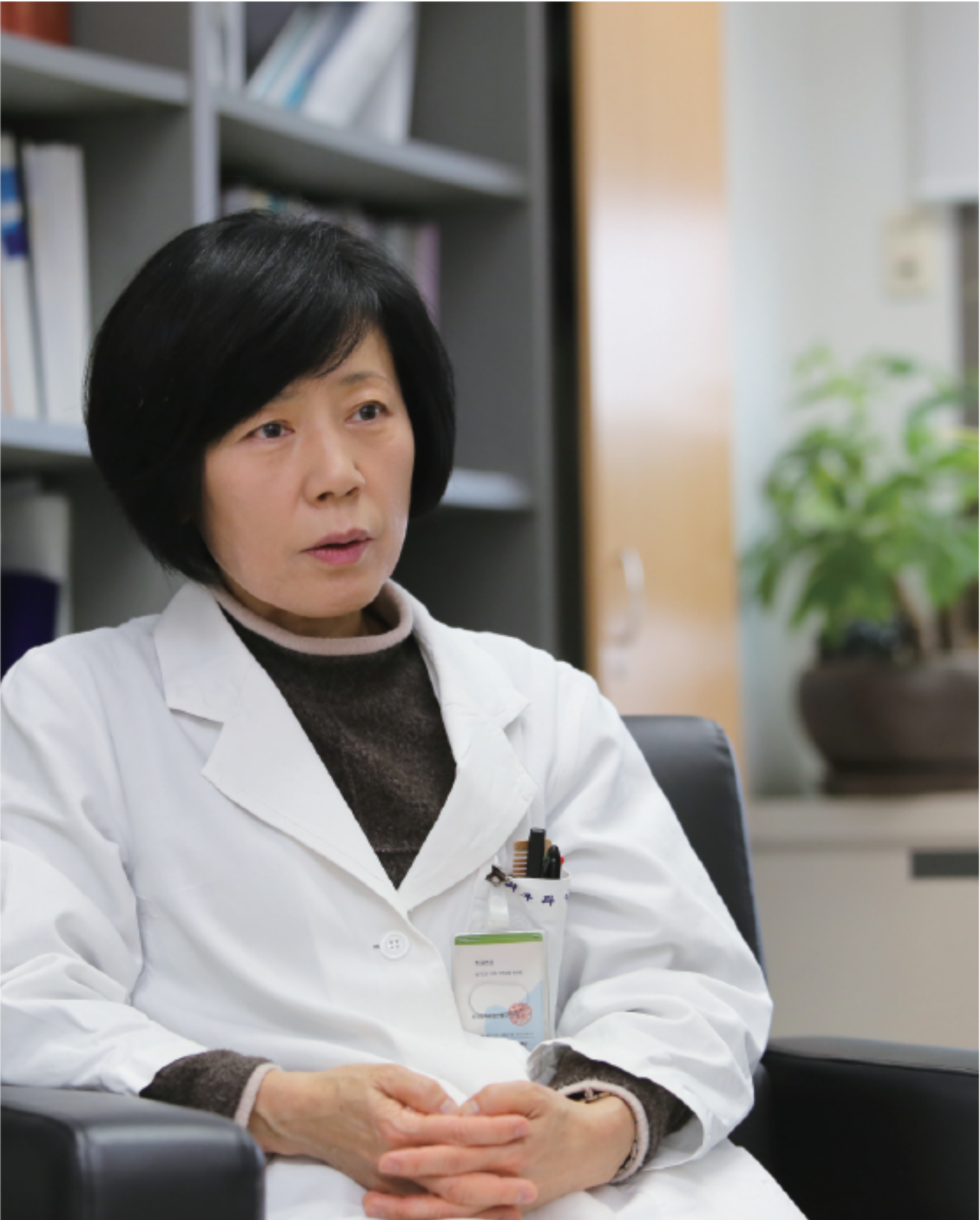


환자에게
목욕법
가르쳐주는
아토피 명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피부과

이 애 영 교수

‘예약시간보다 한 시간을 더 기다려서
꿈에나 그리던 이애영 쌤을 만났어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피부과
이애영 교수를 만나러 가기 전,
그에 관한 자료 검색을 하다가
눈에 뿜 글이다.
‘꿈에나 그리던…’. 빈말이 아니다.
이애영 교수는 맘카페에서
‘아토피 명의’로 통한다.
한 월간지가 연재한
‘명의를 추천하는 명의’로도 소개됐다.
몸이 가려워 피가 날 정도로
박박 긁어대는 자녀를 둔 엄마에겐,
한 시간이 아니라 열 시간이라도 기다려
만나고픈 의사일 것이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은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해요. 올바른 관리법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 악화되는 환자가 많죠.”

이애영 교수는 “내원하는 환자 보호자 중 많은 이들이 아토피 피부염 관리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로 입을 뗐다.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정보가 그만큼 많아진 까닭이라는 것. 목욕법도 그중 하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장벽이 손상돼 발생한다.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소실돼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또한 미생물로부터 피부 표면을 지키는 펩티드가 부족해지면서 피부에 독소를 내뿜고 염증을 일으키는 포도알균이 번성해 가려움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 긁으면 피부장벽이 더 파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가려움증은 아토피피부염 여부를 가르는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 부위를 긁으면 안된다는 걸 알지만 어른도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아기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목욕만 잘해도 증상 완화

“피부의 건조함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목욕을 통한 보습이에요.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목욕 온도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뜨겁지 않아야 한다’는 뉘 합의가 이뤄졌죠.”

이 교수가 오랜 연구와 임상경험으로 얻어낸 목욕 적정 온도는 36~37도. 보습 효과를 높이려면 샤워보다는 미리 받아둔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법이 바람직하다. 목욕 시간은 20분(유아는 15분)가량이 적당하다. 그보다 더 오래 하면 각질층이 떨어져 나간다. 피부장벽 보호를 위해 때밀이도 삼가야 한다. 손에 비누 거품을 내 가볍게 문지른 후 씻어내는 비누목욕은 2~3일에 한 번 하면 된다. 목욕 후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고 병변 부위엔 외용제를 도포하도록 한다. 목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보습, 둘째도 보습이다.

“생활 속에서 올바른 목욕법만 잘 따라도 아토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는 “그러나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교수가 2012년 동국대일산병원 안에 아토피피부염 목욕관리실을 개소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목욕관리실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목욕법 시범을 보여주고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 영상을 보고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제 목욕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목욕관리실은 모두 3개로, 아토피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로 내부를 마무리했다. 목욕관리실은 국내 대형 병원 중 유일한 목욕시설이다. 이 교수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대한 집념과 세심함이 엿보이는 시설이다.



백반증에 아토피피부염까지, 난치병 치료에 도전

이 교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신기한 세상에 끌려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이 가기 꺼려하는 의대에 발을 들여놨다. 동물 해부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는 게 그의 귀띔이다. 그러나 당시 여대생이 드문 의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수없이 이를 악물어야 했다. 그렇게 30년 넘게 질환과 맞서왔다.

그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집중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부터다. 그전에는 백반증 치료에 집중해 국내 처음으로 백반증 환자에게 정상 표피를 이식하는 ‘자가 표피 이식술’을 도입(1987년)하기도 했다. 난치병인 백반증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5년 제9회 함춘의학상(서울대 의대 출신 의료인의 학술연구를 고취하기 위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백반증 치료에 몰두하던 그는 광선치료 적용 질환을 확대하다 아토피피부염에 관심을 두게 됐다. 아토피 질환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했다.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이라고 하면 보호자 대부분이 검진결과를 믿고 싶어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겠지만 아토피피부염은 같은 난치병인 건선이나 백반증보다 치료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완전히 치료될 순 없어도 분명히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죠.”

“몇 년 후면 정년퇴임할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뭐 하나”며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던 그는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내가 깐깐하냐?”며 머쓱하게 웃었다. “그래도 환자들에겐 안 그래요(웃음).” 목소리 톤도, 얼굴 표정도 인터뷰 내내 거의 변하지 않던 그가 던진 농담 같은 속내였다.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라면 ‘못 고치는 병일 줄 알았는데 희망이 생겼을 때’죠. 환자들이 고생(생활 속 관리)을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시작에서도 마무리에서도 그는 ‘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바로잡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30년도 훌쩍 넘어 난치병 치료에 몰두해온 그의 ‘고집’이 보였다. ●

피부와 이 애 영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일본 동경대학 연구 전임의, 서울대병원 전임의, 서울대 암연구소 특별연구원,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전임강사, 대한피부과학회 이사, 대한백반증학회 회장,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경인지회장,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감사

전문진료분야

백반증, 아토피피부염, 접촉피부염, 약진 (백반증클리닉, 아토피피부염클리닉)

진료시간

오전 » 화, 목, 금, 토(둘째주) 오후 » 월, 화

문의 피부과 외래 031 · 961 · 7240~1

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피부과 이애영 교수

Smart Tip

보습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하루에 몇 번 바르면 되나요?

보습제는 공급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데 계절이나 피부의 건조한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피부에 도포하였을 때 붉어지거나 따가움 등의 자극이 없는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은 빠른시간 내 사워만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수분공급을 위하여 효과적인데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하여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15분 이상 담그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음식알레르기의 유발하는 원인으로 우유, 계란, 땅콩이 가장 흔하며 콩, 밀, 생선 등도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음식알레르기는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음식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잖아 음식알레르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유산균이 도움이 되나요?

모유가 장내의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에 근거하여 적정량의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였으나 도움이 된다는 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 등 다양하여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토피피부염 목욕관리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부장벽 기능의 이상에 의하여 피부를 통한 수분손실과 이로 인한 피부 건조증이 유발되므로 피부에 수분 공급이 필요하며 목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장벽 기능의 이상으로 외부로부터 알레르기 물질과 병원균이 피부로 침투하여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누 목욕을 통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를 가도 되나요?

수영장 내에 함유된 잔여염소는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키므로 수영장은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피부염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도 유전되나요?

부모 중 한분이 아토피질환이 있다면 자녀의 50%, 두분 모두 있다면 자녀의 70~80%에서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환절기 계절 변화에 따른 호흡기 관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호흡기내과
이영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수
오후 » 월, 금

문의
호흡기내과 외래 054 · 770 · 8202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로 유달리 더웠다 추웠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날씨였다. 호흡기는 계절 변화에 민감하여 이런 변덕이 심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감기, 독감, 폐렴 등 각종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중 가장 흔한 병이 감기이다.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기에 걸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방 가능하고 꼭 해야 하는 사항은?

감기라고 깔보다가 독감이나 폐렴으로 진단 된 경우도 많다. 주변 동료나 가족에게 전염해 줄 수 있고 사망률도 높아 매년 독감예방 주사 맞는 것은 필수이며, 폐렴예방주사도 권장 한다. 결핵이나 폐암도 증상만으로 구별이 안 되므로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가슴 사진을 찍어보자.

찬 공기가 감기의 원인이 되는가?

common cold(감기)란 진단처럼 예전에는 찬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실험 결과는 찬 온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감기의 발생을 증가시키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온도보다는 습도가 더 중요하고 온도 습도의 변화에 상기도 점막이 적응하지 못해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이 잘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춥다고 실내 온도만 올리는 것은 감기를

불러오는 지름길이 된다. 습도관리를 하자. 젖은 수건을 걸어 놓거나 가습기를 쓰는 것도 좋고, 덩굴 식물이나 열대어를 기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감기에 잘 걸리는 집단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감염원은 초등학교 어린이이며 2차 감염은 접촉 시간, 면역 상태, 가족 내 상황에 따라 다르나 유소아 및 어머니가 취약한 편이다. 병원의 경우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잘 걸려 외래에 약 타러 오는 것을 종종 본다.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은 평균 1년에 4~8회, 성인은 2~5회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스트레스가 위험 인자인데 아마 면역 기능의 저하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고단위의 비타민 C가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감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호흡기 감염이므로 기침 할 때 비말액 흡입이 주 전염경로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의외로 휴지나 전화기, 문손잡이 같이 주변 물건에 오염되고, 이에 접촉한 손에 묻어, 코나 눈을 통해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알려 졌다. 휴지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소독물질을 넣었더니 전염율이 40%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기침하는 환자가 마스크를 쓴 경우와 쓰지 않은 경우 역시 차이가 있었다.

감기는 치료해야 하나?

보험심사 통계를 보면 전체 외래 처방 중 감기에 관계된 처방은 매년 25%정도로 고혈압이나 당뇨병보다 많다. 경험상 치료하는 것이 대세인건 분명한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색한 답변 밖에 할 수 없다.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로 별다른 특효약이 없고 전체 경과도 TV에 나온 의사 말대로 '감기는 약을 안 먹어도 1주일 약을 먹어도 1주일'인데 무엇 때문에 치료를 할까? 그 차이점은 고생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 된다.

감기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감기의 병인을 보면 arachidonic acid(아라키돈산: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 대사물이 염증에 관여하므로 항염증을 위해서는 cyclooxygenase 차단제들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사용한다. 그러나 항염증 작용이 오히려 병의 치료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spirin, acetaminophen (=타이레놀) 사용 시 혈청 neutralizing antibody(중화항체) 생성이 억제되어 바이러스 수의 증가가 오고, 이로 인해 코 증상이 증가하며, virus shedding이 증가한다. 아스피린이 면역 기능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대중요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해열 진통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두통, 인후통이 심할 경우,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만으로 진통 효과를 얻으려면 필요한 용량이 과다하거나 위장장애로 필요량을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이때 codein, Tridol 같은 마약류나 유사 제제를 병용하여 상기 작용을 기대한다.

감기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있는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감기의 주 증상인 발열, 전신통 등은 arachidonic acid(아라키돈산) 대사물들의 생성과 IL-1, IL-6, CRP와 같은 cytokine(백혈구에서 분비되는 단백활성 물질)의 증가가 원인이다. 소아나 노인 임신부,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과 같이 미성숙한 개체이거나 뇌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만성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감기로 초래된 cytokine의 증가는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로부터 전해온 격언대로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내진 설계대로 잘 지어진 집은 큰 지진이 나도 문제없지만 기초가 약한 집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하고 혈관이나 뇌, 기도 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 감기로 인한 cytokine wave(단백활성 물질 변형)는 폭풍만큼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국 감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후유증이 걱정인 것이다.

복잡하게 썼지만 감기는 전염해서 얻어 걸리는 병이므로 감염 관리, 환경관리, 체력관리를 잘하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병도 습관이다.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부디 하나 돌씩 실천해서 감기 잘 안 걸리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라본다. ●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땀과 건강

잠 잘 때
흘리는 땀은
허약하다는
신호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박 성 식 교수

전문진료분야
체질면역클리닉
알레르기·피부·호흡기질환
심신회복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목, 금
오후 » 월, 화
야간 » 화

문의
사상체질과 외래 031·710·3723

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박성식 교수



사람이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땀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인체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도 있으며
피부에 윤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땀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인체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도 있으며 피부에 윤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땀은 인체 생리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1일 발한량을 표준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이 있고, 삼복더위에도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한과 도한

한의학에서는 땀의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땀이 나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자한(自汗)과 도한(盜汗)의 구분이 그 첫째입니다. 낮에 움직일 때 많이 나는 땀을 자한이라고 하고, 잠 잘 때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것을 도한이라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진땀이 나는 자한은 기(氣)가 약한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약해진 기운을 돕는 보기(補氣)의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황기와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밤에 잠 잘 때 흘리는 땀인 도한은 음혈(陰血)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음혈 부족으로 인해 쇠약해진 인체의 진액을 도와주는 보음(補陰)의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당귀와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잠 잘 때 흘리는 땀은 체온 상승과 관련이 적고 정신적인 긴장과의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잠 잘 때 흘리는 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잠잘 때 흘리는 땀인 도한에 대하여 매우 주목합니다. 기저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한이 있을 때는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허약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땀이 나는 부위에 따른 특징

한의학에서는 땀의 부위에 대한 관찰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먼저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두한(頭汗)이 있습니다. 두한 중에는 주로 밥 먹을 때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땀이 나기도 하다가 점차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땀이 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식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식한(食汗)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중년이후에 나타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식사 중에 머리에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정력감퇴 양기부족 등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부위에서만 주로 땀이 나는 심한(心汗) 혹은 흉한(胸汗)의 경우도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가슴 부위에만 땀이 나기도 합니다. 또 수족한(手足汗)이라 하여 손과 발에 주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긴장과 관련이 높은 편으로 한의학에서는 위열(胃熱)이라 하여 위장에 열이나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겨드랑이를 중심으로 나는 땀을 액한(腋汗)이라 하여 간담(肝膽)에 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며, 음부 즉 서혜부를 중심으로 한 음부에 땀이 나는 음한(陰汗)도 있습니다. 이때는 음허가 주된 원인이 되며 피부질환을 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땀을 매우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땀의 양상과 부위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상체질과 땀

한편 사상체질의학에서는 땀의 양상과 부위에 따른 특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체질에 따라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땀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평소 소음인은 평소에 땀이 많이 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상태인데 땀이 자주 흐른다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태음인은 땀이 상쾌하게 나는 것이 건강한 상태이며, 땀이 잘 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봅니다. 일상에서 소음인이 자주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기운의 손상을 초래하기 쉽고, 태음인이 하루 종일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속으로 열이 생겨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태음인은 매일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소양인과 태양인은 땀보다는 대변과 소변의 상태에 따라 건강 상태를 구분합니다.

기저질환과 땀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땀이 나는 부위만뿐 아니라 땀의 색깔이나 땀방울의 모양 등에 따라서 세밀하게 관찰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 치료에 활용합니다. 흔히 땀과 관련된 질병은 다한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몸에 땀이 많이 나는 전신다한증이나, 손이나 발과 같은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국소다한증 등이 있지만, 땀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갱년기증후군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도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땀을 느끼신다면 질병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세끼 식사가 보약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건강 증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の内容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제철 식품들이 그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이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에 맞춰 늘 색다르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여야 하는 관련 업계에서는 중요한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은 '웰빙'먹거리와 건강보조식품을 쏟아내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등은 TV 의학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각종 미디어매체 광고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구입하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홈쇼핑에서는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등의 자극적 문구와 유명인, 연예인의 체험담과 추천 등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또 "요즘 유행이더라", "주변에서 좋다고 하더라" 등의 입소문도 구입 계기가 된다. 그러나 어르신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속이고 과대 광고로 저가의 물품을 속여 고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범죄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이 필수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표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대 표시한 제품이나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 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SA)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 '100% 기능 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달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시중의 일부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끊으면 절대 안 된다. 만성질환의 경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억해야할 한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에 들어간 '식품'이라는 단어가 마치 많이 먹어도 큰 탈이 없는 성분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곤 한다. 하지만 쏘팔메토, 오메가-3, 칼슘, 글루코사민 등과 같이 의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 의약품을 많이 복용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용법을 지키는 습관

함유 성분의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녹차 및 녹차 추출물 속의 카페인을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 있고, 몸에 좋다고 값비싸게 구입한 로얄제리는 아토피,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겐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 복용 중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는 성분이 표시되어있는 상자를 지참하여 진료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진료 의사가 함께 복용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용법과 용량도 반드시 지켜서 복용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3시간 48분 동안 TV 시청을 했다고 한다. 이는 5년 전보다 21분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여가시간(7시간 16분) 중 절반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사용과 함께 꾸준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

Здравствуйте.

키르기스스탄 장관 가족 방문기

아들은 건강해지고 엄마는 예뻐졌어요



의료관광 팸투어 통해 좋은 인상 받아

키르기스스탄의 내무부장관 부부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처음 찾은 것은 2015년이다. 의료관광차 고양시를 방문한 이들 부부가 병원을 둘러보고 바로 든 생각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와야겠다’였다. 올해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아내 치나라씨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들이 담낭(쓸개)에 담석을 가지고 있어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팸투어를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됐고 담낭절제술을 이곳에서 시키자고 부부는 결정했죠.” 아들 아자마의 할아버지도 예전에 담낭절제술을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받았지만 수술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걱정하던 차였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복강경 수술 권위자로 알려진 한인웅 교수를 소개 받고 첫인상에서 신뢰를 느꼈다고 한다.

팸투어 중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부가 병원에 받은 인상은 확실했다. 그저 ‘좋다’가 아닌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꼭 소개하자’고 확신을 갖게 된 것. 이번 방문에 동료 재무부장관 가족도 함께 한 이유다.

깨끗하고 친절환 병원 모습에 반한 가족

“이 병원은 첫째 친절해요. 키르기스스탄 병원과 가장 큰 차이죠. 아들

지난해 의료관광 팸투어를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했던 키르기스스탄 부부가 이번엔 자녀와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아 아들의 외과수술을 상담하고 수술까지 진행했다. 지난 1월 29일은 아들 아자마(16세)의 수술일. 수술이 끝나고 4시간 뒤 회복실을 방문해 보니 아자마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아자마가 받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고 통증이 없어 입원기간이 짧은 편이다. “빨리 일어나 한국관광을 하고 싶다”는 아자마는 컨디션이 어떻냐는 질문에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수술 외에도 우리 가족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절차를 꼼꼼히 설명해주셨어요. 담당 교수님들이 직접 나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큰 감동이었어요.” 팸투어를 통해 받은 좋은 인상은 두 번째 방문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모르는 검진이 많았는데도 모든 절차를 만족스럽게 마친 이유는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의사, 그 외에 국제진료센터의 직원들까지 하나같이 친절했던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치나라씨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왠지 믿음이 더 간다.”면서 “그런 믿음이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줬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원의 깨끗한 모습도 인상적”이라며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들의 수술을 앞두고 걱정됐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복강경 수술로 4일만에 퇴원

병원 일정은 최소화했다. 수요일에 입국해서 목요일에 검사, 금요일에 수술, 일요일에 퇴원하는 일정이다. 검사에서 퇴원까지는 4일, 입국해서 5일만에 퇴원하는 것. 건강검진을 실시한 엄마와 딸은 아들이 숙소에서 회복하는 동안 관광을 더 하고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이들 가족에게는 양방과 한방의 협진 프로그램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키르기스스탄에 작은 한의원들이 생기면서 한방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큰 병원에서도 한방 진료를 한다는 게 놀랍다는 표정이다.

사실 계획에 없던 치료도 갑작스레 하게 됐는데 그것은 엄마 치나라씨의 미용수술이다. 현지에서 부작용을 걱정해 10년 넘게 고민했던 쌍꺼풀 수술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상담 받고는 30분만에 결정했다고 한다. “아들 수술도 잘 끝났고 저는 덤으로 더 예뻐졌네요. 키르기스스탄 돌아가면 한국 병원 좋다고, 이 병원에 꼭 한번 둘러보라고 권할게요.” ●

담낭질환의 치료

담낭절제술은 담낭을 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수술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에는 대부분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을 사용하여 수술합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현재에는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1cm 보다 작은 구멍 3~4개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시간도 평균적으로 1시

간 이내이며 입원기간도 짧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매년 300명 이상의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 받고 있습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장점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복부 근육을 크게 절개하지 않아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처 회복이 빠르며 미용적으로도 우수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처 감염이나 장폐색증 같은 합병증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후 2~3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며 1주 이내에 직장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복강경으로 시행하기 까다로운 총수담관 결석 제거술, 복강경 원위부 췌장절제술, 복강경 간절제술, 복강경 담관낭종 제거술 등이 모두 복강경 수술로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복강경 수술의 수준이 최고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써 여러 외과학회 등에 보고되고 있으며, 해외 유명 의학지에 논문으로 실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

한인웅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화기외과, 간, 담, 췌 외과, 복강경 수술, 담석 수술
진료시간 오전 » 월, 토(격주 진료) 오후 » 화, 금
문의 외과 외래 » 031 · 961 · 7732~3



법상(法相) 스님

불심도문 큰스님 은사로 출가.
'목탁소리'(www.moktaksori.kr) 지도법사,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진행.
저서로 <노부신 오늘>, <날마다 해피엔딩>,
<금강경과 마음공부>, <붓다수업> 등이 있다.

나와 인연 맺은 사람, 그가 곧 우주다

당신이 하찮게 생각했던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의 평범하거나 못난 모습을 띄고 나타난 이 우주법계의 화현이며, 부처의 화신이고, 그가 바로 이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사실 그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인 것 처럼 가장하고 나타난 우주 전체다. 당신이 이 우주법계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지를 보기 위해, 우주법계가, 붓다가, 신이 보낸 화현인 것이다. 바로 그렇게 당신 앞에 등장한 삶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제각기 독자성이라는 파편으로 드러난 우주적인 존재들이다. 우주라는 바다에서 물결이라는 개별성의 파도가 당신 삶 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족이나 친척과의 오랜 불화를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면,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집안일에서의 성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 당신은 이 우주법계 전체에 사랑을 피워낸 것이다.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그 또한 이 세상 전체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일으킨 한 생각, 한 가지 행동은 사실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다. 당신은 그

육신 속에 갇혀있는 개체적 자아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전체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의사거나 간호사, 간병인라면 늘 그렇듯 한 사람의 환자를 만난다. 늘 있는 일이다보니 그 만남은 전혀 새롭거나 감동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매 순간이라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낡은 기억을 검색해 낸 뒤 그것과 동일시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현재라는 생생하고도 새로운 순간을 과거 기억의 재상영으로 추락시킨다. 그러니 오늘 새로 들어 온 환자가 전혀 새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지금 나와 인연 맺은 한 명의 환자는 단순히 어제 그제 만나 왔던 그저 그런 환자가 아니다. 그를 만난다는 것은 온 우주와의 만남이며 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고, 나아가 또 다른 나 자신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내 안에 악업이 많고, 미움과 증오의 업이 많은 사람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환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그 한 사람의 환자는 내 안의 업이 투영된 존재이며, 나의 내면의 외부로 현현된 한 분의 화신불이다.

당신이 환자에게 행한 하나의 행위와 마음 씀씀이는 곧 당신과 이 우주와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에게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행했다면 그것은 곧 우주에게 행한 것이며, 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결과 당신은 이 우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이다.

이처럼 당신의 행위 하나 하나는 곧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고 당신은 이 세상에 더 크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더 위대한 사람, 혹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단 한 사람을 아상이 아닌 지고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구하고 살렸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명심으로 한 국가를 구하고 살린 위인보다 더 아름답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인연 맺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참된 지혜와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를 도우며, 구하고 살리느냐에 있다. 하물며 그 대상이 나의 가족이나 친지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남들 앞에서는 잘 하고, 남들을 돕고, 사랑하고, 말씨도 부드럽고, 행동도 자비롭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가족에게는 더 화도 잘 내고, 무시한다. 가까운 한 사람, 바로 그 단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고, 벗과 친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참된 지혜와 사랑은 우주 끝까지 퍼져나간다. 그것이야말로 우주 전체와의 관계 회복인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무리 좋은 책을 펴 내고, 아무리 명 강연을 하고 다닐지라도 내 아내와 아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나와 인연 맺은 환자 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에 우주법계로부터 외면당한다.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 어떤 의도가 나에게서 나가는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우주법계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내 삶에 등장하는,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그 순간의 최선을 다하라. 그는 인간의 몸을 하고 나타난 부처이며, 우주전체의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붓꽃>, 71x83cm, 캔버스에 유채, 1889, J. 폴 게티 뮤지엄
Vincent Van Gogh, <Iris>, 71x83cm, Oil on Canvas, 1889, J. Paul Getty Museum

붓꽃은 빈센트 반 고흐가 생 레미 드 프로방스 근처의 생 폴 드 모졸로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다. 그 때 그는 아직 요양원의 공원 산책을 허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 환자 거주 구역 내의 조그만 정원에만 나갈 수 있었다. 그 동안의 화가들과 달리 의도적으로 하늘을 잘라내고 사물이 캔버스의 틀에 꼭 끼여 답답해 보이는 이런 구도를 선택한 것은 당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개성 있는 프레임 속에 붓꽃이 자아내는 숨막히는 듯한 감정은 빈센트 자신이 당시 겪고 있었던 감금생활에 대한 심리적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황토 위에 파랑과 보라로 된 어두운 색조와 대비되어 ‘마치 한 마리 나비와도 같이’ 한 송이의 흰 꽃이 그려진 이 그림은 빈센트의 가장 매력적인 작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1987년에 이 그림은 당시 5,39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던 기록이 있다. 한 화가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세상

1890년 7월 27일 빈센트 반 고흐는 들판으로 걸어나가 가슴에 총을 쏘았다. 이틀 뒤 동생 테오가 바라보는 앞에서 3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네덜란드 화가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는 32세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미술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무려 900여점의 그림과 1,100여점의 드로잉을 남겼다. 그의 작품에 담긴 고흐의 삶과 꿈을 들여다 본다.

의 인정과 평가는 빈센트가 세상을 떠난지 거의 일 백년만의 일이라는 점이 적잖은 비통함을 가진다. 그는 사실 서른 일곱 해 밖에 살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어떤 종류의 타협도 거부한 채 진실만을 추구하던 그의 삶에 남은 것은 그림 뿐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 82x114cm, 캔버스에 유채, 1885, 반 고흐 뮤지엄
Vincent Van Gogh, <The Potato Eater>, 82x114cm, Oil on Canvas, 1885, Van Gogh Museum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민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좁고 어두운 방안에는 굶은 손마디를

지닌 사람들이 김이 모락 모락 나는갓 익힌 감자를 먹으며 고단한 하루를 달래고 있다. 한쪽엔 감자를 먹으려는 농부가 다른 한쪽에는 커피를 따르는 여인이 보이는데, 사실 당시에 커피는 귀족의 기호식품으로 농부들은 결코 마실 수 없었다. 가난을 이해했던 빈센트는 지친 농부를 향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능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던 것이다. 세잔느는 이 그림을 미치광이의 그림이라고 비웃었지만 반 고흐 자신의 인생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한다. 빈센트는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동생 테오가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그 중 대부분을 필요한 물감과 캔버스를 구입하는데 소비했고, 나머지는 돈으로 생활하자니 모델로조차 지불할 수 가 없는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 그런 그가 살아 생전 성공을 거둔 적이 딱 두 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890년 출간된 [메르퀴르 드 프랑스]에 알베르 오리에가 처음으로 그의 그림에 대한 찬사를 쓴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의 붉은 포도밭>이 400프랑에 팔린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붉은 포도밭>, 73x91cm, 캔버스에 유채, 1888, 푸쉬킨뮤지엄
Vincent Van Gogh, <Red Vineyard at Arles>, 73x91cm, Oil on Canvas, 1888, Pushikin Museum

“너와 함께 예술에 관해 무한정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편지를 통해 더 자주 이야기하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아름다운 사물들을 조용히 응시해 보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지…. 매일 꾸준히 산책하고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네 자신을 살찌워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술의 본질에 관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빈센트 반 고흐, <시인, 외젠 보쉬의 초상>, 캔버스에 유채, 1888
Vincent Van Gogh, <The Poet, The Eugene Boch>, Oil on Canvas, 1888, Musee d'orsay



좋은 방법이다. 화가들은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자연을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비가 내린 뒤 석양이 땅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포도 잎을 와인 처럼 붉게 물들일 때 그린 것이라고 빈센트는 동생 테오에게 말했다. 테오는 이 그림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출품하였고, 당시 빈센트와 친분이 있던 시인 외젠 보쉬의 누이이자 벨기에 여류 화가이자 작품 수집가 안나 보쉬에게 팔렸다. 지금으로 보면 약 150만원 정도에 구입한 셈인데, 그의 작품의 강렬함 때문인지 화가 안나 보쉬는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바꾸게 하는 그림이라며 그 이듬해 화랑에 되팔았다. 고유의 색이 변화되는 순간의 인상을 빠른 필치로 담아낸 붉은 석양의 따뜻함과 보라 빛의 어두운 땅의 차가움이 오묘하다. 이 그림은 훗날 러시아의 유명한 컬렉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푸쉬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른 이들의 거절과 그로 인한 철저한 고독은 독단적이고 제멋대로인 그의 성격이 가져온 결과일지 모르나 그가 뚜렷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했기에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계를 일류에게 선사했다. 그 영광이 훗날 그의 무덤 위에서 빛나기 시작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말이다. ●

이지운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2004~2016년 현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큐레이터.
저서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 등이 있다.



당신에게 들려주는 강릉이야기

꽤 긴 시간 옷깃을 단단하게 여미게 했던 시린 바람이 나긋나긋해지는 계절.
봄꽃 향기가 살랑거리는 날갯짓하며 날아오기 시작한다.
경포호수로 가는 강릉의 도로는 아직 어둠이 짙다.
새벽의 어둠이 물든 분홍색 매화가 잔뜩 달린 나무들이 긴 팔을 드리운다.
마침내 아침의 해가 떠오르고 붉은 꽃잎이 피어나듯이
따뜻한 빛으로 하늘이 물들기 시작한다.



1

이야기하며 산책하기 좋은 경포호수

경포호수 어귀는 어느 사이에 활짝 피어난 벚꽃들이 꽃잎을 살랑인다. 경포호수의 한 바퀴는 약 5km, 천천히 걸으면 한 시간 삼십 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날씨 좋은 봄날의 아침이라 그런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가끔 보인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쾌하게 앞으로 뛰어나가고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꽃잎은 발걸음마다 꽃길을 만들어낸다.

경포대부터 시작하여 순환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호숫가에 피어난 갈색 갈대 사이로 흰 두루미가 고개부터 내밀어 주위를 살핀다. 긴 다리로 유유자적 물가로 들어가 깔끔한 체하며 몸단장을 하더니 날아올라 호수 저 건너편으로 사라진다. 새들의 움직임이 신호였을까? 아침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자리에는 슬슬 봄꽃 구경을 나온 커플들과 가족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경포호수의 아침은 고즈넉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 가볍게 걸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굵고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2



3

순환산책로를 걷다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소담스럽게 담겨있는 조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의 천진스런 모습,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바구니를 앞에 두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모습까지 그 모습이 어여빠서 그 옆에 앉아서 잠시의 휴식을 해본다. 조각들이 놓인 장소 앞으로 마침 두 대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누구보다 일찍 서둘러서 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천천히 달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부자간의 소통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유랑선비들의 안식처 선교장

경포대에서 2km, 차로 5분 남짓 이동하면 선교장이 나온다. 도로가에 펼쳐진 벚꽃 가로수 사이로 시원스럽게 달릴 틈도 없이 도착하는 거리. 원래 조선 시대라면 배를 타고 갈 수 있던 곳이다. 옛날의 경포대의 넓이는 지금 크기보다 몇 배나 넓었고 이 부근까지 물이 들어왔었다. 선교장이라는 이름의 유래 역시 배로 건너다녔다고 해서 선교(船橋)라 붙여졌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자리 잡은 이 저택으로 들어서면 작은 연못과 함께 세워져 있는 활래정과 월하문이 보인다. 연못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활래정은 수려한 모습으로 방문자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는다. 그 옆에 세워진 월하문은 선교장을 방문하는 이들을 반겨주는 작은 문이다. 이 문 앞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려는 객들이 주저할까봐 선교장의 주인은 이러한 주련을 기둥에 걸어 놓았다.

鳥宿池邊樹 (조숙지변수 :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僧鼓月下門 (승고월하문 :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커다란 문을 보고 혹여나 문을 두드리기 주저할까 문의 크기도 작게 만들었다고 하고 거기에 이러한 주련까지 내걸어 객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손님들 반기던 곳. 강릉은 경포대와 호수를 비롯하여 위로는 금강산을 가는 길목이 있으므로 이 장소는 옛날부터 팔도 유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했다. 그 덕분에 추사 김정희를 비롯하여 수많은 묵객과 강릉 선비들을 비롯한 팔도의 유랑객. 심지어 러시아의 공사관들도 방문하여 교류하며 소통을 했다.

그 덕분에 약 200년 전에 지어진 열화당은 그 모습이 특이하다. 선교장의 주인을 비롯하여 여기에 머물던 묵객들과의 교류를 가졌던 러시아 공사관 사람들이 보답으로 뒷마루 앞에 설치하는 차양을 서양식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열화당은 선교장에 수많은 객 가운데 학식이 높거나 귀한 손님들만 묵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앞의 23칸이나 되는 행랑채 등에 거처를 마련해 썼다.

이렇게 교분과 소통을 중요시하던 선교장은 백성과의 소통에서도 힘을 썼다. 일제강점기에는 공간채를 털어 신학문을 가르치던 학교를 설립하였다가 일제에 의해서 폐교되기도 했다. 지금은 작은 책방이기도 했던 열화당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열화당 출판사를 통해 미술전문서적을 발행하며 파주출판단지의 설립 주축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긴 역사 동안에 객들과의 소통과 문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배움을 담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느껴진다. ●



박태식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2014 시티은행 사보 여행기사 기고
2014~2015 동국대학병원 사보 여행기사 연재
1인 매체 Korea-trip.com 운영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6개 부분 평가에서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안전과 치료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으로 종합병원 평균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6개 부분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질환별 전문 인력이 진단과 수술을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금까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안전과 치료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한 평가

- 급성기 뇌졸중 평가
- 위암 적정성 평가
- 폐암 적정성 평가(2년 연속 1등급)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
- 폐렴적정성 평가(전 항목 100점 만점)
-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수도권 화학사고 시 건강영향조사 주관 병원으로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5년 12월 11일 환경부와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화학사고 시 피해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경부 요청 시 직업환경의학과 안연순교수를 주축으로 수도권 피해주민에 대한 노출평가(설문조사, 생체모니터링 등), 건강검진, 건강피

해 규모 확인 등 건강영향조사를 주관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공유의 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월 7일 5층 대강당에서 제11회 Q경진대회를 개최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환자안전과 고객만족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시행된 Q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우수부서들을 포상했다.

Q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Q우수사례 9개 팀이 구연 발표를 했고, 11개 팀이 포스터 발표를 했다. 오만구 병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Q의 내용이 더욱 알차고 그 결실도 더욱 크고 탄탄해지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병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른둥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만남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2015년 11월 7일 이른둥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행사는 25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하여 △가족사진 촬영 △축하 케이크 커팅 △이른둥이 아기 성장 동영상 시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24시 동영상 시청 △이른둥이

부모님 양육경험과 소감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개원 초부터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기술이 국내·외 최고수준을 자랑했다. 출생체중이 750g 미만에서 약 50% 이상, 1,000g 미만에서는 약 70% 이상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지정받았고, 이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걸맞은 최신장비와 친환경 시설, 인력 등을 보강했다.



태석기 동국대학교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태석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015년 11월 13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연계하여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태석기 원장은 희망등록 캠페인을 연간 25회 실시하면서, 약 1,000여 명에게 희망등록을 받아 각종 말기 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 소아 악성 뇌종양 전이 핵심인자 밝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 양승엽 교수와 서울대교양병원 청소년 암센터 김승기·최승아 교수 연구팀은 소아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수모세포종’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관여하는 중요한 핵심 인자를 밝혔다.

수모세포종 치료에서 전이 여부는 치료 방침 및 예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전이가 어떤 기전으로 이뤄지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양승엽 교수는 “임상적으로 전이가 된 환아에 대한 치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miRNA-192가 전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수모세포종의 전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온코타겟(Oncotarget)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되었다.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6년판 등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에 등재되었다. 안지현 교수는 슬관절 세부 전공으로 슬관절 스포츠 손상과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2015년 총 7편의 임상 논문을 SCI와 SCIE에 게재했다. 또한, △대한 슬관절학회 영문잡지 ‘Knee Surgery and Related Surgery’ △대한 정형외과학회 영문잡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영국 및 호주 슬관절 학회공식 잡지인 ‘THE KNEE’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5년도 대한 슬관절학회에서 선정하는 ‘Travelling Fellowship’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 교수의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2016년판 등재는 슬관절 분야 연구와 다양한 활동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협약 체결로 생명나눔 확산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월 12일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꾀하고, 나아가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자족 실현이라는 국가 보건사업 목표 달성과 함께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체결했다. 잠재 기증자 발굴을 위한 병원-기증원 간 협업 시스템 구축, 각종 홍보활동, 병원 내 잠재조직 기증자 발생 시 기증을 위한 의뢰 시스템 구축, 조직 기증자의 행정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 4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유·소아 급성중이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 것으로, 전체 병원 평균 84.19%의 항생제 처방 비율보다 훨씬 낮은 31.72%로 우수한 처방률을 보여 2012년 이후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동석 병원장은 “경주병원은 심평원의 많은 평가에서 적절한 진료와 우수한 치료로 1등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약물 오남용을 줄여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3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5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 치료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정맥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지질검사 실시율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5일 이내 조기 재발 평가율 등 전체 평가항목에서 95점을 받아 1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2015년 11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분야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이번 메르스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2015년 11월 25일 성남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혜택에 소외된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행정 지원 등 총 9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무릎, 관절, 소화기 계통 등의 진료와 함께 혈압측정, 침, 뜸, 부항치료 및 한방약을 제공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매년 두 차례씩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2015년도 QI 경진대회 성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2015년 12월 11일 병원 강당에서 2015년도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교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재활 치료실 운동기구 효과 및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재활치료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뒤를 이어 '예약프로토콜 개선

활동을 통한 부도율 감소 및 예약률 증대'를 발표한 외래간호팀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해피케어 활동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발표한 병동간호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근우 병원장은 "QI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가 날로 향상하고 있다."며 "한 해 동안 QI활동을 열심히 해 준 교직원들의 노력과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과 축사를 해주신 부의료원장님의 참석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모범교직원 해외연수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개원 19주년을 맞아 모범교직원을 선정하여 2015년 11월 29일부터 5일간 해외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교직원을 선정해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 일대의 유적지를 둘러보며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위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교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제1회 동국의학 심포지움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2015년 11월 27일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5층 힐링홀에서 제1회 동국의학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Convergence for Basic & Clinical Research를 주제로 하여 이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교수들을 초청하여 최근의 연구현황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남경수 학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동국의학 학술 심포지움 개최가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교육과 함께 연구의 수준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국의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2015년 의사 국가시험 전원합격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 의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의 쾌거를 이루었다.

정필현 학장은 "선도적으로 도입한 통합교육, 문제중심학습, 임상수행평가 등 학생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및 경주병원에서의 수준 높은 임상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과대학 박용기학장, 과학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박용기 학장은 2015년 12월 22일 서울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48회 과학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박용기 학장은 한의학과 현대의학 기술을 융합하여 한의약기반 만성 난치성 질환(만성신부전, 허혈성 뇌졸중, 알레르기 비염) 국산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으며, 국내외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만성 난치성 질환을 한의약적으로 재해석하고,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능력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치료제 개발 요구가 많은 해당 질환의 한의약기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의약 선도기술 및 한의약제품화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15년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재학생 전원합격 및 전국수석 배출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한 제71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재학생 응시인원 73명 모두가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지난 2013년 전국수석에 이어 한의학과 김선혜 학생이 2015년 전국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전국 평균 합격률은 94.9%를 기록했다.

나눔의 동행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보광), 1천만 원 쾌척



동국대학교 총장 한태식(보광)은 2016년 새해 첫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병원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인으로 삼은 새해 첫날에 받아 그 의미를 더했으며, 발전기금은 중립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태식(보광) 총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착공에서 준공 그리고 개원까지 병원 건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지난해 9월 열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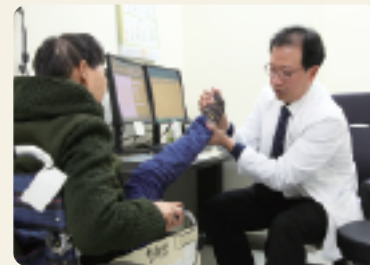
정각사 정목 스님, 승가의료후원금으로 1천 5백만 원 전달



정각사 정목 스님은 2015년 12월 13일 일요가족법회에서 진행된 '작은사랑 성금 전달식'을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승가의료후원금으로 1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정목 스님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데도 형편이 어려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스님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스님들이 건강

한 모습으로 수행과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목 스님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경제적 형편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스님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섯 분의 스님들이 정목스님 기금으로 건강을 되찾아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천개의 따뜻한 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첫 번째 프로젝트로 1월 13일 이전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입소 중인 장애원생 5명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초청해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무료로 시행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과 수행에 전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한 스님을 돕기 위한 큰 뜻을 세우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규정 개정과 후원금 홍보활동을 해 왔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지역민과 이전만 불자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저소득층과 장애복지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돌려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 이제 종단에서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으세요.

지원 대상

구족계 수지와 결계를 필히고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 제외

지원 종류

입원진료비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입원진료비 지원.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은 동국대 산하병원 또는 종단·교구와 협약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 그 외 지역은 모든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원칙적으로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 다만 학업 또는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지원신청을 한 경우 월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2017년 1월부터 1인당 월36,000원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

승보공양 후원 동참 안내

승보공양 후원금은 위와 같이 스님들 의료비 등에 지원합니다.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후원참여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동참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앞당겨집니다.

승보공양동참

ARS 후원(전화 060-700-1077), 1일 1회 1통화 3,000원)

CMS 계좌이체 후원

농협 301-0080-9225-91, 국민은행 023501-04-176129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승려복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제도안내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 ▶ 문의 (02)2011-1726 · 27(조계종 승려복지회)

팩스 733-3603 | 주소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조계종 승려복지회 |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어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3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3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6 Spring | VOL. 6

‘고려의학’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동국’ 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고려의학 전문 의료서비스
고려의학 전문 의료서비스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제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숙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 · 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698~9, 7702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 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6 Spring | VOL. 6

발행인 태석기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6년 3월 1일 (통권 6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일러스트레이션 필몽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